

‘동북아 불교학’ 세계 불교학 발전 나선다

동국대, 도쿄·베이징·타이완대와 불교학 네트워크 결성

동국대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함께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들 4개 대학은 2014년 첫 불교학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불교학 연구 및 교류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함께 내년 5월 동국대에서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 근대불교학’을 주제로 제1회 학술회의를 열며 2년 마다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학술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 및 교류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국의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곳이다. 동국대는 ABC(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을 진행 중인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중국은 베이징대 철학과, 일본은 SAT(대정신수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한 도쿄대 인도철학과, 대만은 CBETA(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를 운영하는 타이완대 불학연구소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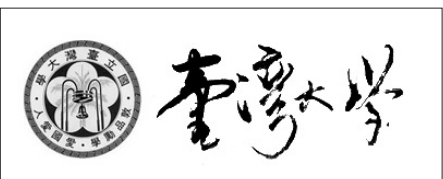
제1회 학술회의에서는 각 대학에서 2명과 함께 서구 불교학자 2명 등 발표자 총 10명이 발표한다. 세계화를 위해 논문과 발표·토론 등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발표자료를 영문 단행본으로도 출판할 예정이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번 4대 대학 불교학 네트워크를 위해 직접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대를 찾아가 협의를 진행했다. 베이징대학 철학과 리스롱 교수, 도쿄대 인도철학과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 타이완대 불교연구소의 사오리화 교수 등을 통해 이번 10월 각 대학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2014년 5월 제1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매년 워크숍·대회·영문단행본 발간 불교아카이브, 일·대만 노하우 점목 세계불교학계 동북아 중심 주장 기대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한국 대학이 나섰기에 결코 쉬운 중립관계와 중·대만관계 등을 중재해 이번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동아시아 21세기 대장경 결집기대 김종욱 원장은 이번 4개 대학의 불교학 네트워크에 대해 “21세기 글로벌 대장경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인문네트워크 형성과 세계학계의 선도 △한문불전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21세기 글로벌 대장경 구축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담론 생성과 동아시아 체제의 모색을 이끌 예정이다.

김 원장은 “ABC사업은 고해상도 원본 사진과 독자 개발한 한자 글꼴, 한국불교본현의 집성 및 자국어 번역 등 지금까지 전산화와 아카이브 사업에서의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첨단 방식”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웹 검색시스템 등 대만 CBETA와 일본 SAT의 노하우를 공유해 ABC사업의 결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중국은 역사분야의 동북

공정에 이어 한문 전적을 집대성해 중국의 역사적 지적 소유권을 확대하는 ‘역의 한적공정’을 진행 중이다”며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학계의 공동대응을 위해서도 이번 대회의 정례화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측은 특히 이번 한중일 불교학 네트워크가 인도·티베트 중심의 불교 연구와 서구 중심의 세계 불교학 흐름을 동아시아로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동북아 불교는 무한한 문헌 자료와 함께 현대 사회에 살아있는 문화”라며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가 세계 불교학을 이끌고 동시에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담론 형성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공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사업 ‘최우수’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13년도 인문한국(HK) 사업 평가에서 43개 연구소 중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연세대 국학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등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HK사업은 인문학진흥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지원하는 인문학 및 해외지역연구 분야 연구소 지원사업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최근 하버드대학의 75번째 동양학총서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인도, 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을 영

문으로 공동 출간함으로써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불교학을 중심으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들 5개 연구소는 11월 14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인문한국(HK), 세계와 소통하다’ 포럼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봉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의 사회 속에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태승 아주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고산문화재단 ‘가야’ 재조명 학술세미나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11월 16일 오후 1시 부산 해운정사 대강당에서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백승욱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지역 국가론’을,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가 ‘고고학적으로 본 가야제국의 존재형태

와 연산동고분군’을 발표한다.

부산시지정기념물 제2호인 연산동고분군은 현재까지 고분 18기가 확인됐고 갑옷과 투구 등 2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한편, 해운정사는 11월 17일 연산동고분군 앞에서 거칠산국 왕족 추모 및 연제국 평안을 위한 ‘제4회 연제국 거칠산국 고분군 왕릉제’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선불교 국제학술세미나

동아시아의 선불교와 철학의 관계를 고찰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박문현·곽만연)는 11월 23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동아시아 선불교, 철학적으로 사유하다’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사쿠마 겐유 교

유하다 △천용거 절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중국 임제종의 인성철학 사고 및 그 현실적 의의에 대한 고찰’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한국 선불교의 세 지평-교 철학적 회고와 전망’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보조지눌과 퇴옹성철의 불성론과 수증론’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금강산 유점사 복원에 불교계 관심 갖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한목소리

신라고찰로 금강산 4대사찰 중 가장 크고 웅장한 대찰로 뽐냈던 유점사 복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해일)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11월 1일 ‘금강산 유점사와 경성포교당 법륜사’를 주제로 서울 법륜사 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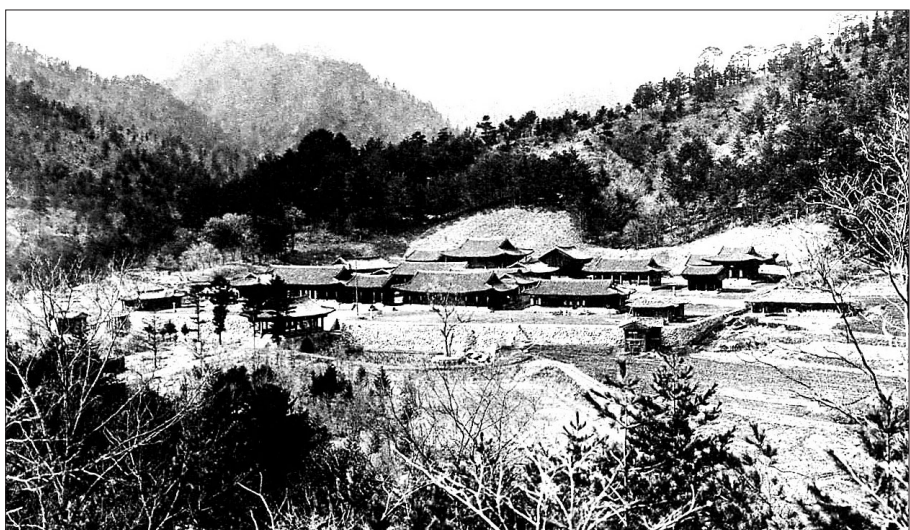
금강산 유점사는 신라시대 창건돼 조선 태종 8년 3000여 칸으로 증건된 고찰로 금강산 4대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대찰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중 소실된 이후 휴전선 근처에 위치한 까닭으로 현 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1929년 유점사에서 경성포교당으로 개설한 서울 법륜사가 유점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후후 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

‘조선 후기 유점사 법맥과 수행 전통의 가치’에서 “금강산 유점사는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조선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신성성과 신앙성으로 왕실과 지배층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며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의 불교계를 주도하는 요람이었다”고 유점사 위상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의 유점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말도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유점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께서 이곳에서 승병을 일으켜 지휘하셨고, 민중 항일기에는 31본산 중 하나로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거쳐간 곳”이라며 “불교계가 유점사 복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고양시청 학예연구사도 ‘유점사 범종의 제작 시기와 발원 계층’에서 “조선 초 왕명으로 전국 유명 사찰에 불경 인경과 사찰 중수를 담당한 선승 학조가 국립출천 박물관 소장된 ‘前 유점사 동종’을 제작했



강원도 고성 유점사의 옛사진. 대가림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됐다.

다”며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강산 유점사가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조각상 여찬의 활동과 불상 연구’,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조각상 여찬의 활동과 불상 연구’ 등 유점사의 위상과 활동 승려 등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개성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세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신라사학회 제130회 학술대회

신라사학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 제130회 학술회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수태 충남대 교수

의 ‘신라 신문왕대 친영례 시행’, 홍성익 강원대 교수의 ‘신라말 강원지역의 선종 불교 전래와 창작과정’, 권영호 대서중학 교 교사의 ‘신라 하대 시기 신라말 인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종교문화비평학회 ‘감각의 종교학’ 심포지엄

종교문화비평학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3년도 하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감각의 종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고·중세 그리스도교, 티베트 불교, 현대 영화, 생태 의례, 사이버 의례 등 다양한 종교전통과 종교현상을 다루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행사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티베트 탕트라 불교수행에서의 감각활용’, 우혜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사이버 불교의례의 구성과 감각의 배치’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고 유망 전문자격증!

직업능력 개발원 등록 NO.2008-0538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위한 특별과정

- 주관 및 시행 : 한국심리상담협회
- 수험자료제공 : 한빛자격교육원 「부설심리상담교육원」
- 시 행 일 정 : 2013년 12월 14일(토요일) 오후 2:00~4:00
- 시 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기타 「전국 동시실시」
- 경쟁범위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합격기준
1차 시험	심리학개론 인성심리학 심리상담심리학 교육심리학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 2차 동시 시행 (절대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단답형 및 O, X형 (20문항)	

☞ 종교지도자(스님)에게는 5% 가산점이 인정되며 합격 후 직무연수 교육은 재택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 스님 및 불교관련 업무자로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풍부해지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부부, 직장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는 물론 종교단체(사찰, 교회)등에서도 가정사역, 치유사역 등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에 심리상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지도자님 및 종교관련 분야 업무자들에게 크게 부합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등록문의

한빛 자격교육원 02)547-5346

통신판매 NO. 제2012-서울광진-0873호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스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순환기성 질한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형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